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이본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itions
Doganonbyun-mojayihokron(道家論辨牟子理惑論)

임 기 영 (Lim, Ke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2 재조대장경 수록 「牟子理惑論」 |
| 2. 판본 개요 | 4.3 신조 13년(1580) 普願寺版 |
| 2.1 서명 | 4.4 인조 14년(1636) 通度寺版 |
| 2.2 저자 | 4.5 인조 16년(1638) 大原寺版 |
| 2.3 내용 | 5. 이본 교감 |
| 3. 편찬 및 전래 | 5.1 재조본 및 보원사판의 비교 |
| 3.1 중국 편찬 및 전래 | 5.2 단행본 3종 비교 |
| 3.2 한국 전래 및 유통 | 6. 맺음말 |
| 4. 이본의 판본 및 서지 | <참고문헌> |
| 4.1 초조대장경 수록 「牟子理惑論」 | |

< 초 록 >

이 연구는 초기 불교서인 『理惑論』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판본의 개요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서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전존 간본의 간행 경위 및 판본 간의 차이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크게 『理惑論』의 한국 전래와 유통 및 간행 양상에 대한 측면과 판본별 간행 경위와 본문의 구성이나 차이 등 이본의 교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국내에 전존하는 『理惑論』의 이본은 재조대장경 『弘明集』본을 포함하여 모두 4종의 판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들 판본 간에는 외형상 드러나는 간행 계통상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결과적으로 본문의 교감을 통한 판본간의 상관성을 유추해 보고자 시도되었고, 더불어 판본 간 드러나는 차이점을 함께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상 자료의 저본 및 판본의 계통을 조사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까지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 중에서 판각의 저본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간본이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要語: 佛敎, 『理惑論』, 『弘明集』, 大藏經, 寺刹版, 校勘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psycholo@hanmail.net)

접수일: 2012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existing editions of *Yihokron*(理惑論) in Korea from a bibliographical point of view. Therefore we tried to look into history on the outline of the editions, later we also examined the publication motive, distribution process and the text difference of every editions so forth on the basis of bibliographical research. Eventually this study put an emphasis on the acceptance and the distribution aspect of *Yihokron*(理惑論), another point was left in detailed comparison of respective editions, that is focused in the text organization, vocabulary, the character etc. According to the research, we could know 4 kinds of edition was investigated including the edition of *Hongmyungjip*(弘明集) in the Tripitaka Koreana. But, it was hard to find a common ground or relationship in systematic branch of the publication. In the meantime, we consequently tried to investigate the relativeness of every editions along with the difference of the text. This kind of research could be useful in the systematic research of *Yihokron*(理惑論) especially in the field of comparative study as well. Likewise, we couldn't know the first edition of *Doganonbyun-mojayihokron*(道家論辨牟子理惑論) as ye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foundation of related studies.

Key words: Buddhism, *Yihokron*(理惑論), *Hongmyungjip*(弘明集),
The Tripitaka, Engraving of temple, comparison of the text

1. 머리말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찍이 周나라 또는 後漢代까지 소급되어진다. 불교가 전해질 당시 중국에서는 이미 유교라는 높은 차원의 전통적 고유 문화가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교는 중국 관료 사회의 윤리적 기준이자 국가의 학문으로 굳게 자리매김하던 시기였다. 이처럼 유교문화의 융성함속에 일부 道家의 사상까지 뿌리내리던 시점인 불교의 도입 초창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理惑論』¹⁾이 저술되었다. 그리고 책이 지어진 시점이나 간결한 내용으로 보아, 저술의 동기는 외래 사상이었던 불교의 교리를 손쉽게 일반인들에게 유포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중국의 불교 도입 초기 저술인 『理惑論』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판본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한 다음, 국내 전존 간본의 간행 경위와 판본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理惑論』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에 의한 그간의 성과들이 다소간 누적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불교 수용이나 불교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예컨대, 장애순²⁾은 중국의 전통 사상과 불교가 도입되는 시점에 유불도의 논쟁과 융합의 양상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박찬영³⁾은 인도불교의 중국 화라는 관점에서 전통 사상인 유교와 도교에 대한 불교의 갈등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羅基成⁴⁾은 삭발이나 출가, 服飾이나 布施 등 기존 유교와 불교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理惑論』의 입장을

1) 본문에서 기술하는 서명의 명칭은 일반 명사일 때는 『理惑論』으로 통일하고, 특정 판본이나 학자에 따른 명칭은 선행연구 및 판본에 기재된 바에 의거 『理惑論』, 『牟子理惑論』,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을 병용하였음.

2) 장애순, “『弘明集』에 보이는 儒佛道 三敎의 교섭에 대한 고찰 - 『牟子理惑論』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31권(2009. 12), 133-148.

3) 박찬영, “『理惑論』에서의 牟子の 불교 수용론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 『大同哲學』 제35집(2006. 6), 1-22.

4) 羅基成, “牟子理惑論에 나타난 儒佛의 갈등,” 『韓國佛敎學』 제19집(1994. 10), 413-434.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초기의 불교 전래와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任繼愈,⁵⁾ 梁啓超,⁶⁾ 久保田量遠,⁷⁾ 福井康順⁸⁾ 등의 연구가 있고, 神尾一春⁹⁾은 선조 13년(1580) 普願寺版 『道家論辨理惑論』에 대하여 내용과 판본에 대한 해설을 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神尾一春이 목견하고 해제한 판본은 권말의 간행 및 간행 참여자 등의 기록이 누락되었던 판이었다. 이후 완전한 판이 발견되었으므로, 당시 그가 주장한 내용 중 판각 시기와 간행 사항 등에 대한 기술의 상당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稻岡誓純¹⁰⁾은 『理惑論』의 성립 시기와 저본이 되는 경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같은 관점에서 陳義雄¹¹⁾도 『理惑論』의 저본이 되는 경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理惑論』의 始原을 고찰하였다. 또한 吳勇¹²⁾은 관련 기록을 수찰하여 책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하였으며, 曹秀明¹³⁾은 본문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유교와 도교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사상적 측면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理惑論』에 대하여 경전의 저본이나 진위여부, 또는 초기 불교의 수용 및 기존 사상과의 갈등이나 조화 등 사상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다. 반면, 국내에 남아 있는 『理惑論』의 판본에 관한 연구는 神尾一春의 해제¹⁴⁾ 정도가 있고, 그 밖의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에 진존하는 『道家論辨牟子理惑論』에 관한 서지적 검토의 일환으로 진존하는 판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각 판본의 성립이나

5) 任繼愈 主編, 『中國佛教史 第一卷 - 第三卷』(北京: 新華書店, 1993).
6) 梁啓超 著, 『中國佛教研究史』(上海: 上海三聯書店, 1988).
7) 久保田量遠 著, 『中國儒道佛三教史論』(東京: 國書刊行會, 1986).
8) 福井康順 著, 『道教의 基礎的研究』(京都: 法藏館, 1987).
9) 神尾一春 著, 『道家論辨牟子理惑論解說』(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1).
10) 稻岡誓純, “牟子理惑論の研究,” 『佛教大學大學院研究紀要』, 第11號(1983. 3), 25-47.
11) 陳義雄, “牟子理惑論所引佛經典源試探一以第一問爲主,” 『華嚴專宗學佛學研究所論文集』(2009. 5), 1-23.
12) 吳勇, “試論牟子理惑論之眞僞,” 『宗教學研究』, 207卷 2期(2007. 6), 68-73.
13) 曹秀明, “牟子之道及其對儒佛道三家之評價,” 『佛學與科學』, 11卷 1期(2010. 2), 29-37.
14) 神尾一春, 上揭書, 1-19.

유통 및 간행 경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들 판본의 본문 교감을 통하여 개별 판본간의 관계 및 그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상 자료의 저본 및 판본간 상관성을 조사하고, 그 차이를 구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까지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 중에서 판각의 저본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간본이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본 개요

2.1 서명

책의 저자로 알려진 牟子에 대하여 검토하기에 앞서, 책의 서명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책의 명칭인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서명 해석상 문제이다. 이러한 명칭은 현존본의 권수제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 책이 단독으로 간행된 사례는 전존본이나 여러 기관의 목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책의 분량이 많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梁나라 僧祐(445-518)에 의해 「弘明集」에 편성된 이후 「弘明集」의 제1권에 포함되어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라는 서명은 「弘明集」이 우리나라에 유통되어 초조 및 재조대장경에 포함된 이후에 나타난다. 즉, 현존본으로 추정컨대 조선시대 중엽에 이르러 비로소 단독으로 간행되면서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라는 서명으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이러한 서명이 붙여진 연유는 책이 지어질 당시 주변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풀이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곧 책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後漢 말기에서 東晉 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유교와 더불어 老子的 도가 사상이 유행하였고,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파도기적인 혼란한 시기¹⁵⁾였다.

따라서 본서는 당시 불학도이자 유학 및 여러 사상을 섭렵하였던 이로 알려진 牟子在 북방의 도가들에게 佛徒의 입장에서 불교의 핵심 사상을 논변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牟子가 의혹을 다스린 글로써, 도가의 방술사들에게 논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책의 서명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명의 해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 반면, 무엇보다 간행 당시에 이 같은 서명을 붙인 것은 편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 이와 같은 추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편찬된 佛書인 『弘明集』에서 분리되어 단독으로 유통된 것은, 16세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책의 일반적인 명칭인 『牟子理惑論』의 본래 서명은 <治惑論>이었다. 초창기 <治惑論>이라는 서명으로 전하다가, 唐 高宗(649-683) 이후 고종의 휘를 피하기 위하여 <理惑論>이라는 명칭으로 유통되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¹⁶⁾이기도 하다.

2.2 저자

이 책의 저자에 대하여 梁啓超,¹⁷⁾ 松本文三郎¹⁸⁾ 등의 학자는 東晉에서 劉宋간의 僞作이라는 설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周叔迦,¹⁹⁾ 福井康順,²⁰⁾ 余嘉錫²¹⁾ 등의 학자는 後漢때에 牟子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논의를 펼쳤다. 이러한 주장에는 초창기 판본이 남아있지 않고, 여러 사료에서 『理惑論』에 대한 저자의 전기나 관련 기록이 일관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唐 태종 연간 편찬된 『隋書』 권34의 <經籍志>에는 유가류에 ‘牟子二

15) 任繼愈 主編, 『中國佛教史 第一卷』(北京: 新華書店, 2009), 142.

16) 陳新會 撰, 『中國佛教史籍概說』(臺北: 三人行出版社, 1974), 51.

17) 梁啓超 著, 『中國佛教研究史』(上海: 上海三聯書店, 1988), 21.

18) 松本文三郎 著, 『佛教史雜考』(大阪: 創元社, 1944), 7.

19) 周叔迦 著, 『牟子叢殘新編』(北京: 中國書店, 2001), 383.

20) 福井康順 著, 『道教の基礎的研究』(京都: 法藏館, 1987), 332.

21) 余嘉錫, “牟子理惑論檢討,” 『燕京學報』 第20期(1936. 12), 7.

卷 後漢太尉牟融撰'이라 되어 있고, 10세기 및 11세기 중엽에 편찬된 「舊唐書」와 「新唐書」에도 '牟子二卷 牟融撰'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 달리 「佛祖統紀」, 「佛祖歷代通載」, 「釋氏稽古略」의 문헌에서는 한결같이 '世稱牟子 …'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저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牟子>가 「弘明集」 제1권에 수록된 「牟子理惑論」인지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理惑論」의 찬자인牟子에 대하여 後漢의牟融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재조대장경에 포함된 「弘明集」 수록 <牟子理惑論>의 서문에는牟子の 전기를 일부 서술하고 있어서, 기록의 진위여부를 떠나 그의 행적에 대한 단편을 접할 수 있다.

즉, 재조본에서는 <牟子理惑>이라는 서명 다음 행에 '一云蒼梧太守牟子博傳'이라 하여, 창오의 태수를 지낸牟子博에 의하여 저작되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서술한 기록²²⁾에는,牟子是蒼梧의 태수가 아니라 창오의 태수에게 간택되었던 인물로 앞선 문구와 상치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牟子が 살던 때는 後漢의 靈帝(168-189)가 죽은 뒤에 천하는 어지러운 상태였다. 이에牟子是 어머니를 데리고 交趾²³⁾에 도피하여 있었다. 이후 그의 나이 26세가 되어서는蒼梧로 돌아와 결혼을 하였다. 당시蒼梧의 태수는 모자가 학문에 깊이가 있음을 알고, 그를 방문하여 役人으로 기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牟子是 나이가 어리고, 혈기가 있어서 오로지 학문에 정진하고자 한 결심을 세웠다. 그리고 세상이 혼란하였기 때문에 끝내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고, 관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명기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牟子에 대하여, 그가 정확히 누구이며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무엇보다 그에 대한傳記가 전하지 않으며, 수록 문헌의 관련 기록이 혼동되어 있어서, 단순히牟子 또는 漢나라 太尉를 지냈던牟融이나蒼梧太守,牟子博 등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22) 再雕本 「弘明集」 卷第一 <牟子理惑>.

23) 廣西省 安南 부근.

당시 蒼梧의 太守가 牟子였다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는 않다.

다만, 『隋書』 <經籍志> 및 『舊唐書』 등에서 밝힌 바처럼, 牟子が 漢나라 太尉를 지냈던 牟融이었던가에 대하여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10세기 중엽 范曄이 편찬한 『後漢書』에 牟融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後漢書』 권제 26 <伏侯宋蔡馮趙牟韋列傳> 권16에 수록된 牟融의 전기²⁴⁾에 따르면, 牟子和 牟融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몇몇 문헌상 『理惑論』의 저자로 표기한 牟融의 자는 子優이고, 子博이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후대에 판본이 전사되면서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둘째, 牟融은 北海 安丘의 사람이지만, 牟子は 『理惑論』의 서문에서처럼 廣西省 蒼梧 지방으로 출신 지역 또한 다르다. 셋째, 牟融은 관직의 길로 나서서 太尉가 되었지만, 모자는 太守가 되었다. 그 밖에도 牟融이 죽은 시점은 建初 4년(79)이지만, 『理惑論』의 서문에 따르면, 牟子が 활동하던 때는 ‘靈帝崩後 天下擾亂’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靈帝가 죽은 시점은 189년으로 비교된다. 즉, 이러한 문구로 미루어 당시 牟子が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죽은 시점은 적어도 189년 이후가 된다. 따라서 牟子和 牟融은 사망 시점에서도 10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理惑論』의 저자에 대하여, 常盤大定은 『弘明集』 제7권에 수록된 <駁顧道士夷夏論>과 『牟子理惑論』과의 공통된 내용이 많다는 조목별 사례를 들어 지적하였다. 따라서 책이 지어진 시점은 南宋 이전²⁵⁾이고, 책의 저자는 <駁顧道士夷夏論>을 찬술한 治城寺 惠通이라고 주장²⁶⁾하는 등 다양한 관점이 혼재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理惑論』에 전하는 서문에서 牟子を 언급한 사실과 본문 전체의 내용과 구성이 불교에 대한 물음에 牟子が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24) 『後漢書』 권제26 <伏侯宋蔡馮趙牟韋列傳> 권16 ‘牟融傳’, ‘牟融 字子優 北海安丘人也 少博學 以大夏侯尚書教授 門徒數百人 名稱州里 以司徒茂才爲 豊令 … 永平五年 入代 鮑昱 司隸校尉 … 建初四年 夢 車駕 ….’

25) 常盤大定, “漢明求法說の研究,” 『東洋學報』 Vol.10, No.1(1968. 1), 18.

26) 常盤大定, 상계논문, 24.

책의 저자가 牟子로 世稱되고 있을 뿐이다.

2.3 내용

「理惑論」의 저술 동기로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에 대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전파시키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저술의 바탕에는 논의의 대상이 된 불교가 당시에는 외래 사상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교와 도교라는 토착 사상과의 조화의 관점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저술의 방법적인 면에서는 교리나 사상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牟子와의 문답 형식으로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전존하는 「理惑論」의 가장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본인 재조대장경 「弘明集」 권제1의 <牟子理惑論>에 의하면, 권두에 牟子의 서문을 한 단락 두고, 연이어 책의 본문이 되는 牟子와의 문답을 전개하였다.

再雕本の 경우 물음과 답변은 문단의 구분없이 서술하였고, 각 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물음에 따라 행을 바꾸어 새로운 단락으로 배치하였다. 이는 읽는 이들로 하여금 각각의 篇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제25편의 경우 물음과 답이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제37편에 이은 발문 부분도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얼핏 드러나는 문답의 수는 39편에 달한다.

한편, 이러한 각각의 문답들은 재차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연구자에 따른 편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크게 4개의 범주로 정리하였다.

<표 1> 「牟子理惑論」의 내용 구분

구 분		해당 편수	비 고
제1범주	불교의 연원 및 역사	1, 5, 6, 7, 8, 19, 21, 25, 26, 27, 28, 29	釋家 傳記, 불교 유래, 석가 일화 등
제2범주	불교 교리 관련	2, 3, 4, 13, 14, 18, 24, 33, 34, 35, 36, 37	윤회, 전생, 인과응보, 불로장생 등
제3범주	불교 윤리 관련	9, 10, 11, 12, 16, 17, 22, 23	佛法 실천, 物慾, 布施, 出家 등
제4범주	불교 풍속 관련	15, 20, 30, 31, 32	삭발, 부귀, 빈천, 육식 금기 등

이상의 편수 중에서도 내용면에서 아주 유사한 범주를 다룬 편수를 더 세분할 수가 있다. 예컨대 제1범주 불교의 연원이나 역사를 다룬 부분에서도 제5편과 제6편 및 제19편은 불교의 연원 중에서도 불교 경전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같은 제1범주에서 제7편과 제27편은 불도의 수양, 제21편과 제25편 및 제26편은 불교와 경전의 전래에 대하여 다룬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 제2범주에서도 제3편과 제4편 및 제24편은 불교의 교리 가운데 道에 대하여 집중하여 다루었다. 같은 제2범주의 제13편과 제18편에서는 공히 생사와 영혼에 대하여 문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범주의 제22편과 제23편과 제4범주의 제30편과 제31편 역시 편수만 구분되어 있을 뿐 내용상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등 각 편수간에는 유사한 내용을 다룬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理惑論」의 본문 내용에 대하여, 陳義雄²⁷⁾은 그 저본이 되는 경전으로 「理惑論」이 성립 이전 경전으로 「開元釋教錄」에 기재되기도 하였던 「修行本起經」, 「六度集經」, 「瑞應本起經」 및 「梵摩渝經」과 「普曜經」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문의 내용과 그 인용의 근거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더불어 「理惑論」이 성립된 이후 이 책의 본문을 인용한 사례를 함께 예시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27) 陳義雄, “牟子理惑論所引佛經典源試探—以第一問爲主,” 『華嚴專宗學佛學研究所論文集』 (2009. 5), 6-17.

「玉燭寶典」, 송나라 李昉이 편찬한 「太平御覽」, 청대 康熙帝의 명에 따라 편찬된 「淵鑑類函」 등을 적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례로 볼 때 「理惑論」의 저술은 당대의 여러 경전을 참고하거나, 그러한 사람에 의하여 저술되었으며, 그 내용은 후대에도 꾸준히 인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牟子理惑論」은 짧은 본문을 통하여 불교의 연원, 전래와 역사 및 불교 경전과 교리 등을 각각의 편수로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불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본문의 서술이나 내용 전개시에도 불교가 이질적인 외래 사상이므로, 기존의 유교와 도교라는 고유 사상과의 조화와 수용이라는 관점도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본문에 전개된 불교 사상 및 풍속 등에 대한 설명시에는 「春秋」와 「孝經」 및 노자의 「道德經」 구절이 자주 인용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공자의 「詩經」과 「書經」을 빗대어 道를 설명한 것과 도가의 불로장생과 불교를 빗대어 설명한 것 등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간명한 물음과 답으로 본문을 전개하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토착 사상과의 조화라는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에 본문의 문투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유교의 충효 사상이나 도교 사상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양자에 대한 포용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제35편이나 제36편에 명시한 바처럼, 유교나 도교의 신선술 등에 대하여 불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불교의 관점에서 일부 비판을 가하기도 하는 등 부처의 근본 사상을 고유 사상보다 우위에 두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요컨대 「理惑論」에서는 본문의 37편이라는 짧은 문답을 통하여 끊임없이 유교와 도교라는 고유 사상과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기존 사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조화와 수용이라는 측면으로 인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교리와 우월성을 뚜렷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 편찬 및 전래

3.1 중국 편찬 및 전래

『牟子理惑論』의 편찬 시기에 대하여는 몇 가지 이설이 있다. 이는 곧 『理惑論』의 저자를 누구로 보느냐는 관점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에 梁啓超나 常盤大定 등은 梁나라 僧祐(435-518)가 이 책을 『弘明集』에 편성하여 넣기 얼마 전의 시기인 4세기 즉, 東晉以後 성립설의 입장에 있다. 그에 반해 周叔迦나 福井康順, 山内晋卿 등의 학자는 <牟子序>의 기록에 따라 後漢末인 2세기 후반 牟子が 활동하던 때 저술되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 鎌田茂雄은 이보다 시기를 좀 늦추어 3세기 초경 吳나라 때에 찬술되었고, 후대 사람들에 의한 가필이나 수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²⁸⁾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주장에는 학자들만의 논거와 관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판본에 나타나는 기록에 의거하고, 또한 2차 자료인 여러 서목 자료나 목록에 나타나는 기록에 따라 편찬 시기를 가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牟子理惑論』 판본에 기술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다루는 것은 별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재조본 洪명집의 <牟子序>에 따르면, 後漢末 靈帝(156-189)가 죽은 시점을 2세기 말을 전후하여 책의 편찬이 시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목록상 나타나는 가장 빠른 판본의 기록은 5세기 宋 明帝(445-472) 때 칙명을 받들어 陸澄이 편찬한 불교 문헌 목록인 『法論』에 처음 등장²⁹⁾하고 있다. 즉, 5세기가 되어서는 刊寫本의 여부를 떠나 일반에게 유통되었던 사실이 짐작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法論』에 기재된 『牟子理惑論』의 편성이나 체제 및 형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시기 양나라 僧祐(435-518)에 의하여 『弘明集』이 편찬되었고,

28) 鎌田茂雄 著, 章輝玉 譯, 『中國佛教史 1』 (서울: 장승, 1993), 264.

29) 稻岡誓純, “牟子理惑論の研究,” 『佛教大學大學院研究紀要』 第11號(1983. 3), 25.

그 편찬 시기를 승려 僧祐의 말년인 507년에서 514년 사이³⁰⁾로 볼 때, 이 책이 당시까지 단행본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僧祐가 이 책을 「弘明集」의 제1권에 포함시킨 이후 7세기에서 11세기까지는 세간에서 단행본으로 읽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세기 초 편찬된 「隋書」 <經籍志>와 10세기 중엽의 「舊唐書」 및 11세기 중엽 曾公亮이 總裁하여 완성한 「新唐書」에는 모두 ‘牟子 二卷’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물이 전하지 않으므로 당시 목록상에 밝힌 ‘牟子’가 현전하는 37편의 문답 형식의 「牟子理惑論」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쟁점의 대상³¹⁾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淨然이나 福井康順, 任繼愈 등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5세기의 서목 기록인 「法論」을 비롯하여, 11세기 「新唐書」에 이르기까지 ‘牟子’로 수록된 서명이 현전하는 37편 형식의 「牟子理惑論」과 동일하다고는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 개연성이 높을 뿐이며, 오히려 이상의 여러 목록상 <牟子>의 권차를 2권으로 표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여러 학자들 또한 전존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재까지도 판본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주목할 사실은 13세기 이후부터는 중국에서도 「牟子理惑論」이 단행본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13세기와 14세기의 목록이나 사료에는 ‘牟子’나 「理惑論」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모두 「弘明集」에 수록된 판본을 언급하였다. 이를테면, 13세기 중반 志磐이 편찬한 「佛祖統紀」에는 蒼梧儒生 牟子の 「理惑論」을 적시하였지만 大藏 「弘明集」에 수록되었다³²⁾고 하였다. 또한 14세기 초중반의 「佛祖歷代通載」나 覺岸의 「釋氏稽古略」에서도 僧祐의 「弘明集」에 포함된 「理惑論」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30) 劉立夫 著, 「弘道与明教: 「弘明集」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 2004), 26.

31) 福井康順, “牟子の形態,” 「道教の基礎的研究」(京都: 法藏館, 1987), 355-367.
淨然, “「牟子理惑論」之卷數考,” 「法源學報」第21期(2003. 12), 1-14.

32) 「佛祖統紀」 권35. ‘初平二年 蒼梧儒生牟子因世亂 無仕官意銳志佛道 面世多非之 及製理惑論以爲勸 … 文見大藏 弘明集.’

따라서 중국에서도 14세기 이후 『牟子理惑論』의 유통은 대체로 『弘明集』 판본의 유통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에 『弘明集』은 대장경에 포함된 판본으로 嘉興藏本과 頻伽藏本이 있고, 單刻本으로는 만력 14년(1586) 汪道昆이 서문을 작성한 吳惟明 刻本과 19세기 金陵本으로 양분³³⁾되어 전하고 있다. 이 중 萬曆 14년(1586) 吳惟明 刻本은 근대 『四部叢刊』 <弘明集>의 저본³⁴⁾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弘明集』으로 합본되어 유통되었던 판본 간행의 특징은 清代의 장서가이자 목록학자였던 孫星衍(1753-1818)이 밝힌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당시까지도 牟子 판본은 단독으로 간행된 사례가 없어서, 『弘明集』에서 발췌하여 수록³⁵⁾하였음을 밝혔다.

이후에도 『牟子理惑論』은 단독으로 유통되지 않고 『弘明集』에 수록되어 18세기 『四庫全書』의 간행에 포함되었고, 또한 근대의 『四部叢刊』이나 『四部備要』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수록되는 등 그 명맥이 이어졌다.

3.2 한국 전래 및 유통

『牟子理惑論』의 한국 流傳에는 전존하는 판본 및 중국에서의 『牟子理惑論』 간행과 전래 양상,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초창기 불교 전적 유통이라는 관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에서 간행된 『牟子理惑論』이 단행본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중국의 간행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6세기초 僧祐에 의해 『弘明集』에 포함되었던 점, 그 이후 중국에서도 주로 『弘明集』에 포함된 형태로만 유통되었던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존하는 판본 중에 가장 빠른 것이 초조대장경 수록본 『弘明集』이라는 점, 그 밖에 이 판본은 특정 사상이나 종파에 치우친 경전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특정 사상 관련 경전이 아니라는 사실은

33) 陳新會 著, 『中國佛教史籍概論』(臺北: 三人行出版社, 1974), 48.

34) 劉立夫 著, 『弘道與明教: 『弘明集』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 2004), 27.

35) 神尾一春 著, 『道家論辨牟子理惑論解說』(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1), 1.

판본의 단독 입수나 유포 사실을 더욱 反證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경우 ‘牟子’라는 단행본 서목이 11세기까지 나타나지만, 당시 간행된 판본은 남아있지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이 현존본과 동일한 형식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그러한 단행본이 우리나라에 유통되었다는 어떠한 기록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牟子理惑論」의 전래 시기는 「弘明集」에 포함된 형태로 간행된 「弘明集」 유입 시기와 동일선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에 판본의 유입 시기는 초창기 중국과의 대장경 교류 및 輸入 그리고 그 간행 시기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의 불서 교류는 일찍이 당나라 武德 연간인 7세기 초경부터 나타나고, 특히 貞觀 17년(643) 당나라로 유학한 유학승 慈藏이 귀국할 당시 唐 태종에게 경장 400여함을 얻어 통도사에 보관하였다는 기록³⁶⁾이 전한다. 이후로도 興德王 2년(827)에 승려 丘德이 당에서 불경 경문 및 函을 가지고 귀국할 때, 王이 여러 절의 승려를 거느리고 興輪寺 앞길로 마중나간 일, 敬順王 2년(928)에 승려 洪慶이 閔府에서 大藏經 1부를 신고 귀국할 때 왕이 몸소 마중을 나왔고, 경문을 帝釋院에 두도록 한 일, 그 밖에 「宋史」와 「高麗史」에 빈출하는 중국과의 대장경 교류 기록을 참고³⁷⁾하면 10세기를 전후하여 이미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활발한 양국간 교류의 결과 11세기 초에는 初雕大藏經에 포함되어 간본이 판각되었고, 13세기 중엽 再雕大藏經 集函에도 그 내용이 온전하게 포함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한편, 「弘明集」에 포함된 「牟子理惑論」을 하나의 간행 계통으로 보았을 때, 이와 별도로 조선시대 16세기부터는 주로 사찰에서 단독으로 간행되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조선 중기 普雨(1509-1565)가 편찬한 「虛應堂集」³⁸⁾

36) 黃有福, 陳景富 지음, 權五哲 옮김, 「韓·中 佛教文化 交流史」(서울: 까치, 1995), 87.

37) 黃有福, 陳景富 지음, 상계서, 88-92.

38) 「虛應堂集」 선조 6년(1573) 離幻 跋文本, 上卷 제19장 <次玉師軸韻并序>.

‘… 其說成卷徧行于世如商英之護法 隱夫/ 之顯正牟子之理惑法林之辨正論 …’

에서는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牟子理惑論」의 단행본 유통 사실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을 밝히고 있다. 普雨는 玉師의 詩에 次韻하면서 당시에는 유교와 불교를 논변한 글이 세상에 두루 유행한다 하였다. 이에 商英의 <護法論>과 隱夫의 <顯正論>, 牟子の <理惑論>과 法林의 <辨正論>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학설들이 책을 이루어 유통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당시 단행본 유통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普雨가 언급한 학설들의 일부는 대장경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간에 두루 유통되었다고 한 것은 대장경 이라기보다 별도의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이로부터 얼마 뒤인 선조 13년(1580)에 「牟子理惑論」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므로, 普雨의 기록 및 단행본 유통 사실을 더욱 뒷받침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牟子理惑論」이 「弘明集」에서 분리된 정확한 시점이나 내용이 대폭 編削된 경위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단순히 사찰의 간행 업무 및 열람의 편의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내용을 줄였을 것이라는 일방적인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그 이후로 「牟子理惑論」 또는 「弘明集」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기록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牟子理惑論」의 경우 전존 간본으로 인조 14년(1636) 通度寺本과 인조 16년(1638) 大原寺本이 남아 있으므로, 사찰에서는 한동안 단행본으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앞선 보원사판(1580)과 인조 14년(1636) 通度寺版은 윤병태³⁹⁾에 의하여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책판 목록상 기록이 일부 남아있다. 이는 18세기 말에 徐有渠(1764-1845)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洪命憲가 교정을 본 「鏤板考」의 사례이다. 즉, 「鏤板考」 第5卷 <子部> 釋家類에는 「弘明集」 책판을 수록⁴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독으로 간행된 사찰간본이 아닌 해인사 재조대장경판의 조사 목록이다.

이상과 같이 「牟子理惑論」의 한국 전래 및 유통 양상으로 도입기는 「弘明集」에 포함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후로도 「弘明集」에 포함되어 대장경 간행이

39)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62, 77.

40)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 1050.

나 유통과 그 흐름을 함께 한 하나의 계통이 있었다. 반면,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 16세기를 기점으로 『弘明集』에서 분리되었고, 내용도 대폭 줄어든 단행본의 형태로 17세기까지 사찰에서 유통되었던 또 다른 간행 계통이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와 같은 사찰의 간행 양상은 17세기 이후로도 개별 사찰을 중심으로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현존하는 판본이 없으므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본의 판본 및 서지

4.1 초조대장경 수록 『牟子理惑論』

이 판본의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4년에서 2009년에 걸쳐 이루어진 국내외 전존하는 초조대장경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따라, 일본 南禪寺에 소장된 초조본 548종 1,876권 1,763책들이 일제히 조사⁴¹⁾되었다. 당시 조사된 자료 중에 ‘墳’函의 『弘明集』 권7과 권8의 2권 2책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초조본은 재조본과 函次까지 일치하였고, 본문의 대조 결과 일부 글자나 글자의 부수 차이 정도만 나타날 뿐, 내용 편성의 차이는 없었다. 중국이나 일본의 대장경에서도 『弘明集』은 모두 14권 편차의 구성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초조본도 재조본과 동일한 14권 형태의 『弘明集』으로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권제1에는 <牟子理惑論>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4.2 재조대장경 수록 『牟子理惑論』

이 판본은 재조대장경 ‘集’函의 『弘明集』 권제1에 수록되어 있다. 재조본 『弘明集』의 전체 분량은 14권으로 편성되었다. 각 권의 권두에는 ‘梁楊都建初寺釋

41) 南權熙, “南禪寺 初雕大藏經의 書誌의 分析,” 『한국중세사연구』 제28호(2010. 11), 65-136.

僧祐撰'라는 찬자 표기와 각 권의 권말에는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가 있어서, 고려 고종 33년(1236)에 새겨진 간본으로 확인된다. 본문의 행자수는 1장 23행 14자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경전의 권제1 권수에는 僧祐가 찬한 『弘明集』의 전체 서문 1張이 있고, 연이어 <牟子理惑論>이 수록되어 있다. <牟子理惑論>의 분량은 재조본 장차로 제27장까지 이어지고, 제28장에서 제38장까지 <正誣論>이 합錄되어 『弘明集』 권제1이 마무리되었다. 재조본 『弘明集』의 합차는 권제1-권제4까지는 '集'函, 권제5-권제14는 '墳'函에 할당되어 있다.

4.3 선조 13년(1580) 普願寺版

4.3.1 간행 및 전래 경위

이 판은 권말의 간행 사항으로 선조 13년(1580) 충청도 瑞山의 伽倻山 普願寺에서 개판하였다⁴²⁾고 밝혔다. 책이 간행될 당시인 조선 중기 瑞山 普願寺가 위치한 일대는 가야산으로 통칭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보원사 인근에는 산봉우리 하나의 거리를 두고 開心寺가 있었다. 이 시기 개심사에서 간행되었던 『蒙山和尚六道普說』, 『初發心自警文』 등 불경 인본에서도 開心寺의 지명이 伽倻山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찰과 산의 명칭에 대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현재 개심사는 사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보원사는 절터만 남아 있고, 寺址가 위치한 곳의 지명은 象王山으로 불리어진다.

한편,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 간행되었던 16세기 普願寺와 開心寺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던 상황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선조 10년(1577) 보원사에서 간행된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와 선조 12년(1579) 보원사판 『達磨大師血脉論』 및 선조 13년(1580)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간행시 각수로 참여한 廣惠 등은 얼마 후 선조 17년(1584) 개심사에서 판각된 『蒙山和尚六道普說』 등

42) 『道家論辨牟子理惑論』刊記. '萬曆八年庚辰四月日 新刊于伽倻山 / 普願寺.'

의 간행에도 참여한 사실⁴³⁾이 있다.

또한 당시 새겨진 경전의 현존 인본을 비교해 보더라도, 서체나 판을 새긴 양식이 꼭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에는 두 사찰간의 거리가 가깝고, 양 사찰 모두 대본산 麻谷寺의 영향⁴⁴⁾을 받았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책이 간행되었던 16세기 후반 두 사찰은 모두 활발한 불경류의 판각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이는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 새겨졌던 선조 13년(1580)을 기점으로 16세기 후반 두 사찰에서 간행된 불경류의 중수는 15종 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간행이라는 관점에서 빠트릴 수 없는 사실은, 보원사 불경 간행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간행의 전모를 파악하지 않더라도, 시기를 한정하여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 되던 당시 普願寺의 출판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보원사에서는 16세기 중반 명종 21년(1566) 3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 「諸般文」의 간행⁴⁵⁾을 필두로, 선조 4년(1571) 3월에는 목판화 「靈山會上圖」가 판각되었다. 같은 해(1571) 3월에는 「高峰和尚禪要」, 선조 10년(1577)에는 「預修薦王通儀」와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가 각각 개판⁴⁶⁾되었다.

또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 간행되던 직전 해(1579)에는 「達磨大師血脉論」이 留鎖⁴⁷⁾되었고, 간행이 이루어진 당해(1580) 3월에도 「達磨大師觀心論」이 판각되기도 하였다. 이 중 「達磨大師觀心論」 권말 간기 제2행에는 ‘萬曆八年三月上澣前箕子殿參奉崔德頌書’라고 되어 있다. 崔德頌이 판하본을 정서하였던 사실을 밝혔으나, 그 해 간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존하는 목판으로 추정컨대, 같은 해(1580) 4월에 새겨진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이면에 「達磨大師觀心論」 제22장이 새겨져 있다. 이로 미루어 선조 13년(1580) 3월에 崔德頌이 판하본을 써서, 같은 해(1580) 4월에 「道家論辨牟子理惑論」과 함께 판각되었던

43) 宣祖 17년(1584) 開心寺版 「蒙山和尚六道普說」의 권말 간행참여자 명단.

44) 權相老, 「韓國寺刹事典」(서울: 梨花文化出版社), 63, 739.

4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및 「諸般文」 <刊記>.

46) 「預修薦王通儀」 및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 <刊記>.

47) 「達磨大師血脉論」 <刊記>.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普願寺의 불서 간행에서 주목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는 당시 간행된 불서류의 성격으로,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서적은 한결 같이 선종류와 예참부 서적으로 일관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道家論辨牟子理惑論』도 이러한 불서 간행 사업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요컨대, 보원사에서 간행된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은 당시 사찰 출판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간행된 서적들과는 주제와 성격면에서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결국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간행은 불교의 관점에서 교의를 상기시키고, 개인의 도덕 의식을 수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 간행된 이듬 해(1581)에도 『天地冥陽水陸雜文』이 개간⁴⁸⁾되는 등 보원사와 인근 개심사의 예참류 서적의 출판은 한 동안 계속되었다.

이 밖에 간행의 실무적 관점에서 판각 업무의 재원이나 물자 지원은 禦侮將軍 田連宗 외 17명의 대시주가 담당하였다. 여기에 판의 書寫는 幼學 崔豪世가 맡았고, 새긴 각수는 妙敬, 惠崑, 廣惠, 太雄의 4명이 분담하여 간행 업무를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普願寺에서 새겨진 판목은 그 뒤 어떠한 연유로 개심사에 보관⁴⁹⁾되기도 하였고, 이후로도 한동안 보원사의 간행 사업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普願寺는 훼손되었고, 당시 보원사에서 새겨졌던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을 포함한 불경 11종의 판목들은 모두 개심사로 옮겨져서 현재까지 남아있다.⁵⁰⁾

4.3.2 간본의 서지

보원사판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소장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동국대 등의 기관이다. 여기서는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48) 『天地冥陽水陸雜文』 <刊記>.

49) 선조 13년(1580) 새겨진 규장각 소장본(想白古299.14-D677)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권말에 ‘瑞山開心寺藏板’의 印記가 확인되고, 현재까지 開心寺에 판목이 보관되어 있다.

50)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189.

서지 기술 대상으로 삼았다. 책의 형태사항으로 외형의 크기는 31.4cm×21.5cm에 표지에는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서명이 필사되어 있다.

판의 권수제는 ‘道家論辨牟子理惑論’으로 되어 있고,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 16.7cm×10.9cm로 비교적 작은 판형으로 새겨졌다. 본문의 계선은 없고, 반엽 행자수는 7행 15자로 일정하다. 판심의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판심제는 ‘牟子’로 새겼고, 판심제 아래에 장차를 매겼다. 전체 장수는 본문 16장과 간기 1장을 합친 17장 분량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제1장을 새긴 변란의 우측 하단에는 판시주로 보이는 ‘曹億眞兩主’라 새겼고, 그 외 변란 밖에 새겨진 내용은 없다. 권말의 제16장의 본문이 끝난 제6행에는 1행에 걸쳐 ‘大施主禦侮將軍田連宗’이라 밝혔다. 다음 장인 제17장에는 간기 사항으로 제1행과 제2행에 ‘萬曆八年庚辰四月日新刊于伽倻山 / 普願寺’라고 판각하였다. 간기에 연이은 서사자 및 시주자, 각수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書寫幼學 崔豪世 / 奉爲主上三殿壽萬歲 / 大施主 黃鶴壽 兩主 /
大施主 郭內隱石 兩主 / 韓世亨 徐凡連 朴加同 /
韓白隱文 李紋亨 姜信福 / 李世龍 兩主 內隱德 / 全國介 兩主 內隱今 /
金允美 兩主 荒德 / 黃胤朴兩主 凡碩 / 大施主 崔甘孫 兩主 /
開刊 妙敬 惠崑 廣惠 太雄 /

이 중 판을 새긴 廣惠는 선조 10년(1577) 普願寺에서 판각된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⁵¹⁾와 선조 12년(1579)의 「達磨大師血脉論」에서 각수로 참여⁵²⁾하였다. 또한 인근의 開心寺에서 선조 17년(1584)에 새겨진 「蒙山和尚六道普說」에서도 妙淳, 戒禪과 함께 판을 새기는 역할을 담당⁵³⁾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기 사항을 새긴 변란의 좌측 하단에는 판의 소장 사항으로 ‘瑞山開心寺藏板’의 붉은색 印記가 날인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간행 관련 기록과는 별개로, 외형적으로 동국대 소장본은 새긴 뒤

51)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 <刊記>.

52) 「達磨大師血脉論」 <刊記>.

53) 「蒙山和尚六道普說」 <刊記>.

바로 찍은 초쇄본이 아니라 후대에 찍혀진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은 글자의 마모된 획과 광곽의 탈락 부분이 많이 노출된 점, 그리고 비교적 근세의 것으로 보이는 종이 紙質 등에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후쇄의 특징은 동국대 소장본 뿐 아니라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기관의 소장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초쇄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책의 간행 시기에 대하여 神尾一春⁵⁴⁾은 본문 제16장 제6행의 ‘大施主 禦侮將軍田連宗’이라는 구문을 통하여 몇 가지 주장을 내세웠다. 즉, 불서에 관직명을 표기한 점과 禦侮將軍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던 시기 등을 제시하고, 판본의 간행시기는 고려 또는 조선 초기 세조조에 판각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판본을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추정으로 여겨지고, 권말의 간기를 새긴 제17장이 붙은 온전한 판본이 발견됨에 따라 간행 시기에 관한 이견은 일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부언할 사실은 규장각을 포함하여 제 기관에서 분류한 이 책의 사부분류상의 문제이다. 국내 소장처에서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분류는 공히 子部의 道家類 범주에 두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서는 그 내용면에서 불교에 정통한 牟자가 도가의 방술사들에게 불교의 교의 및 孝사상을 논변한 것이다.

그리고 대장경의 『弘明集』에도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후대 판본들도 『弘明集』의 내용을 전제한 것들이다. 또한, 원저술이 이루어진 중국의 여러 소장 기관 및 논저에서도 『弘明集』이나 『理惑論』을 道家書로 분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한결같이 중국의 불교 수용 및 漢代 초기 불교서라는 관점에서 이 판본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진 분류는 서명의 단순한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여겨지고, 그 분류는 子部 釋家類의 범주에 두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54) 神尾一春, 『道家論辨牟子理惑論解說』(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1), 18.

4.4 인조 14년(1636) 通度寺版

4.4.1 간행 경위

17세기 중엽 인조 14년(1636) 2월에 간행된 통도사판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은 「佛說金沙論」과 함께 새겨졌으며, 전존본 또한 합철되어 전한다. 일반적으로 인본이 합철되어 전하더라도, 책의 판각 시기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통도사판은 행자수와 글자의 서체나 판심 모양, 그리고 심지어 권말에는 새긴 「佛說金沙論」의 별도 간기⁵⁵⁾까지 「道家論辨牟子理惑論」과 동일하므로, 같은 시기 판각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시 함께 간행되어 합철된 「佛說金沙論」은 저자 등 전래 경위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道家論辨牟子理惑論」과 상통한다. 본문은 부처와 普賢菩薩과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서명에서 암시한 바대로 ‘金沙’ 즉, 禪定을 닦아 眞實無着하게 되는 경지를 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통도사판 또한 서문이나 발문 등 간행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 판본이 통도사에서 간행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책이 간행될 당시 통도사에서는 여러 불경들이 함께 출판되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 간행된 불서들로 하여금 간본의 출판이 이루어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通度寺版이 새겨지던 해(1636) 2월에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 개간⁵⁶⁾되었고, 「佛說金沙論」이 같은 시점인 인조 14년(1636) 2월에 함께 새겨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1637) 5월에는 수록재 의식서인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가 개관⁵⁷⁾되었고, 인조 17년(1639) 1월에는 불사 의식 절차를 정리한 「諸般文」이 重刊⁵⁸⁾되었다.

55) 「佛說金沙論」 제6장 제5행. ‘崇禎九年丙子仲春通度寺開刊 學融.’

56)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刊記>.

57)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刊記>.

58) 「諸般文」 <刊記>.

또한 인조 26년(1648) 5월에는 수록재 의식서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가 模刊⁵⁹⁾되고, 이듬 해(1649) 7월에는 공양 의식 등 일용 의식 절차를 다룬 『仔夔刪補文』이 重刊⁶⁰⁾되었다. 같은 해(1649) 8월에는 休靜(1520-1604)이 편찬한 선종 수행서인 『禪家龜鑑』이 重刊⁶¹⁾되었고, 이후로도 현종 11년(1670) 2월에 『僧家儀禮文』과 『禪教釋』이 동시에 開刊⁶²⁾되는 등 사찰의 선종 및 예참류 서적 출판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한 통도사의 대대적인 개관 불사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선조 36년(1603) 儀靈大師와 효종 3년(1652) 淨仁大師가 주도하여 두 번에 걸친 사찰의 대대적인 중수⁶³⁾와 맞물려 寺勢를 정비하고, 寺格을 공고히 하고자 한 의도도 일부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불서 출판은 時食이나 點眼의식 또는 茶毗 천도식 등 사찰 내에서의 일상 의례를 위한 필요에 따른 출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참선이나 강학 교재 등 사찰의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간행 사업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이 특정 시기 사찰 출판의 경향을 언급할 때, 당대 사찰의 성격이나 개별 사찰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던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출판 사례에서도 간행 서적의 공통점이 확인되며, 이는 통도사관을 비롯한 나머지 2종의 사찰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곧 함께 간행되는 불서의 주제와 성격, 그리고 이들 사찰에서 『理惑論』을 간행하게 된 동기나 그 목적이 상반되지 않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여기에 또한 한 가지 짚어볼 사실은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큰 흐름상의 특징이다. 이는 임란 후 17세기 전반기에는 지역이나 사찰을 불문하고 茶毗式, 遷度式 등 여러 헌공 의식서들이 집중 개관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출판 경향은 『理

59)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刊記>.

60) 『仔夔刪補文』 <刊記>.

61) 『禪家龜鑑』 <刊記>.

62) 『僧家儀禮文』 <刊記> 및 『禪教釋』 <刊記>.

63) 敏悟 錄, 숙종 31년(1705) 刊 목판본 『娑婆教主戒壇源流綱要錄』 제3장-제4장.

惑論」이 간행되었던 通度寺나 후술할 大原寺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결국 국가적 兵亂과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慰靈 역할을 불교가 담당하였다는 범 불교적 측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시기 불교계 및 각 지역의 사찰에서는 법회와 기도를 통해 나라의 안녕을 빌고, 無主孤魂의 원령을 달래고자 하였던 공통된 의식이 있었고, 이러한 의도가 불서 간행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찰이나 불사의 법회 및 의식이 많이 이루어졌던 만큼 의식서 및 예참서의 간행 빈도가 잦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간행 실무의 관점에서 이 판의 판각 업무에는 사찰의 승려와 주변 인물 등 여러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신분으로는 施主者와 藏書, 三綱, 鍊板, 供養主, 刻手, 引書, 校正 등 18명에 달한다.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은 비슷한 시기 통도사에서 이루어진 출판 활동에 중복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각수 등 일부 인원은 타지역 사찰관의 판각 사업에도 개입하고 있으므로, 당시 사찰간 이루어진 인적 교류의 정황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존본을 새긴 판목은 현전하지 않고, 다만 당시 간행되었던 인본이 송광사 등 일부 사찰과 기관에 남아있다.

4.4.2 간본의 서지

통도사판 「理惑論」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으로 확인되는 곳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충남대학교 도서관 등이다. 여기서는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서지 기술의 대상으로 삼았다.

책의 형태사항으로 외형의 크기는 29.5cm×19.2cm이며, 표지에는 ‘道家論’이라는 서명이 필사되어 있다. 표지는 간행시 제본된 것이 아니라 재활용지를 사용하여 후대에 개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권수면 우측하단에는 기관에 맡겨지기 전 소장자로 보이는 ‘李月泳氏寄贈’의 印記와 변란밖 우측 하단에 현재 소장 기관인 ‘東國大學圖書館’의 둥근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판의 권수제는 ‘道家論辨牟子理惑論’으로 되어 있고, 광곽의 형식은 四周雙邊에 반곽의 크기 19.8cm×14.7cm이다. 본문 사이에 계선이 있고, 반엽의 행자수

는 9행 16자로 일부 드나들이 있다. 판심의 어미는 주로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이나 규칙적이지 않고, 판심제는 ‘牟子論’으로 일정하게 새겼다. 판심제 아래에
는 장차를 두었고, 합철된 『佛說金沙論』을 제외한 전체 본문의 분량은 10장에
달한다.

이 밖에 본문의 사이사이에는 책을 읽은 흔적으로 약체 구결이 묵서되어 있고,
본문의 일부 훼손된 부분은 내지를 덧대어 배접하였고 墨으로 보사하였다. 그리
고 본문의 마지막 장인 제10장에는 책의 간기와 간행 참여자 명단을 판각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崇禎九年丙子二月日慶尙道梁山郡地 / 鷲棲山通度寺開刊 /		
前判事 玄瓚	校正 自浩	功德刻字 惠英 /
前住持 性元	大德 學訥	鍊板 熙旭 /
前住持 雪雄	雲浩	供養主 冲英 /
前和尚 文洽	太淨	別座 學輪 /
前奉先住持 敬一		供養施主 弘濟 /
藏書 智悅		施主 天輪 /
三剛 靈一		引書 淸學 /

이와 같은 인조 14년(1636) 2월에 현재 靈鷲山으로 불리는 鷲棲山 通度寺의
간행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理惑論』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 중 상당수는 이
시기 사찰의 출판 활동에 중복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통도사관의 교정을
담당하였던 自浩는 이듬 해(1637) 간행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에 山中 大德
으로 참여하여 판각 사업의 업무 조율을 담당하였다. 大德 學訥과 雲浩 또한 동일
한 역으로 임하였고, 『理惑論』과 같이 새겨진 『佛說金沙論』의 學融은 인조 15년
(1637)의 『中禮文』에서도 鍊板 업무를 맡았다.

또한 『理惑論』 간행 시 공양주였던 弘濟는 이듬 해(1637) 간역에서 板床施主
를 맡았고, 책의 서사를 담당하였던 淸學은 인조 20년(1642) 事蹟의 간행시 판의
校正을 담당하여 참여 역할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간행된 불서에서 승려나 기술자들의 중복 참여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 빈도가 매우 잦게 나타난다. 특히, 각수로 참여한 惠英은

통도사에서 이루어진 이듬 해(1637) 「中禮文」의 판각뿐 아니라, 인조 20년(1642)의 事蹟 및 인조 26년(1648) 「結手文」의 간행에도 참여하여 10년이 넘는 활동 기간을 보였다. 또한 그는 승려이자 전문 각수로 활동하였던 정황이 보이며, 이는 비슷한 시기 인조 16년(1638) 밀양의 靈井寺와 인조 25년(1647) 청송의 普賢寺의 불서 간행에서도 刻員으로 참여⁶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존본의 전반적인 인쇄 상태는 자획의 나뭇결이나 계선의 마모 정도로 볼 때, 판각한 뒤 바로 찍어낸 초쇄본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책을 찍은 종이의 지질이나 자획의 끝이 살아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판이 새겨진 뒤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인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5 인조 16년(1638) 大原寺版

4.5.1 간행 경위

이 판이 간행된 大原寺는 寶城郡 文德 天鳳山에 위치한 사찰로 대본산 송광사의 말사⁶⁵⁾이다. 大原寺는 개창 초기 열반종의 중심도량으로 통일신라 말기까지 번창하였고, 고려시대 사찰의 중창을 계기로 참선수행의 도량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찰의 성격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고, 그러한 사례로 17세기 중엽 참선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던 「禪門拈頌集」이 同寺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당시 가람의 물력과 인력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어 이루어진 「禪門拈頌集」은 간행된 뒤 普願寺 및 주변 지역으로 배포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현재까지도 그 인본은 송광사 및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전한다.

그리고 본사와 말사 관계였던 松廣寺와 大原寺의 교류 사실은 17세기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 간행되던 당시 사찰의 각수들의 불경 판각 사례에서 확인된다. 즉 인조 13년(1635)의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및 인조 25년(1647) 송광사판

64)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각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190.
65) 權相老 編, 「韓國寺刹事典(上)」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4), 430.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 등에서 동일역으로 참여한 사실에서 확인되고, 이 중 일부 인원은 안심사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혔던 것⁶⁶⁾으로 보여진다.

한편, 大原寺版 또한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앞선 2종과 마찬가지로 출판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전술한 두 판본과 같은 맥락에서, 임란 후 일관된 17세기 사찰 출판의 일환이라는 사실과 사찰에서 당시 함께 간행되었던 불서와 간행 참여자로 책이 판각되었던 경위를 소급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판본은 앞선 2종과의 공통점이 쉽게 확인된다. 예컨대, 이 시기 보원사에서 간행된 불경으로는 인조 14년(1636) 『禪門拈頌集釋』과 『禪門拈頌集』이 판각⁶⁷⁾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禪門拈頌集』의 개관은 당시 인근 사찰의 승려와 전문 각수들이 일거 참여한 대규모 판각사업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실은 『禪門拈頌集』의 전존본이 3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판의 간행에는 여러 명의 書寫字와 大德 大禪師들의 참여가 많았고, 각수들도 10명 이상이 동원되었던 사실로 짐작된다. 게다가 이러한 각수 중에는 일부는 인근 松廣寺와 安心寺 등지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였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 밖에 『理惑論』이 간행된 이듬 해(1639) 2월에는 불교 공양의식문을 정리한 『雲水壇歌詞』가 개관되었다. 이 판은 각수 克明과 鍊板 學成이 참여하였는데, 克明은 앞서 인조 14년(1636) 『禪門拈頌集』의 간행에서 참여하였고, 연판자 學成은 『理惑論』의 간행시에도 동일역으로 참여하였다.

앞서 살펴본 2종의 판본과 마찬가지로 17세기 중엽 大原寺版 『理惑論』의 간행은 당시 함께 간행되었던 선종 및 예참류 서적과 함께 사찰에서 판각이 추진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禪門拈頌集』은 禪家의 話頭와 禪師의 要語를 모아 편찬한 선종의 핵심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禮懺書인 『雲水壇歌詞』의 판각과 더불어 『理惑論』이 사찰에서 개관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불교계의 흐름이라는 측면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66) 金相溟, 상계논문, 147.

67) 『禪門拈頌集釋』 및 『禪門拈頌集』 <刊記>.

이는 무엇보다 책의 간행 사실만으로 「理惑論」의 출판 동기를 단순히 미시적 관점에서 사찰의 필요성이라는 1차적 이유만으로 규정한다면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존하는 3종의 판본이 모두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개판되었고, 이는 무엇보다 임란 후 대두된 불교의 역할론과 불교계의 위상, 당시 좁아진 불교계의 입지 등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당시 이루어진 조선 중기 사찰관의 전반적인 출판 경향이라는 거시적 관점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정컨대, 사찰의 제반 인력과 물력이 동원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당대 불교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변 환경이 반영되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된다. 여기에 건국 이래 유교국에서 불교의 위상이나 입지가 유교 가치에 동조하고, 시대사조에 부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의 요인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아울러 본다면, 당시 이루어진 「理惑論」 출판의 동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불교적 관점에서 전란 뒤 이를 극복하고자 한 현실적 필요성의 측면, 둘째, 유교적 가치 이념을 내세운 조선 개국 이후 불교계의 근본적인 존립 위기감, 셋째, 불교의 도입 초창기와 유사하게 유교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던 당시의 시대 상황,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가치에 부합하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던 불교계 노력과 그에 따른 중앙 권력이나 백성들의 지지 수단으로 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전의 출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으로 귀결된다.

물론, 이 가운데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실은 불교가 유교 사회에서 존립을 모색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윤리와 충효의 실현이라는 점이고, 당시 사찰 일대에서 이루어진 「理惑論」의 출판에도 직접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출판 의도와 더불어 간행의 실무는 惠寬이 판하본을 쓰고, 學成이 판을 다듬어 克閑이 판을 새겼다. 이 중 판하본을 쓴 惠寬은 인조 14년(1636) 같은 사찰에서 간행된 「禪門拈頌集」을 서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鍊板者 學成은 이

듬 해(1639) 보원사에서 간행된 『雲水壇歌詞』의 판각시 동일역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4.5.2 간본의 서지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형태 사항으로 외형의 크기는 24.1×16.3cm이며, 표지에는 ‘牟子論’이라 大字로 필서되어 있다.

판의 권수제는 ‘牟子理惑論’이라 새겨져 있어 앞선 판들과 차이가 난다. 광곽의 형식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15.8×13.7cm이다. 앞선 普願寺版과 같이 비교적 작은 판형으로 새겼으나, 본문 사이에 계선을 새겼고, 행자수는 9행 15자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판심의 魚尾는 주로 上下內向四瓣花紋魚尾이나 규칙적이지 않고, 제목으로 ‘牟’라고만 새기고 아래에는 장차를 두었다. 전체 본문의 분량은 13장이다.

본문을 새긴 마지막 제13장에는 페이지를 달리하여 간기 및 간행 참여자의 이름을 새겼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崇禎十一年戊寅(1638)六月日寶城地大原 /
寺開板 /
學成 鍊板 /
克閑 刊 /
惠寬 書 /

이상과 같이 전라도 보성의 大原寺에서 판각한 사실을 밝혔다. 이 가운데 學成과 惠寬은 이 시기 보원사에서 간행된 불경류의 간행에 중복으로 참여한 인물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한편, 책의 본문 군데군데에는 내용을 읽은 흔적으로 약체구결이 필사되어 있다. 그리고 판의 전반적인 상태는 계선이나 자획의 약간의 마멸이 발생하였으나, 새긴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인쇄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5. 이본 교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 판본이 실물로 남아 전하는 『理惑論』은 재조대장경 홍명집본을 포함한 사찰 단행본 3종의 모두 4종이다. 그 밖에 국내 여러 기관에 소장된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은 보원사판이나 통도사판 등 사찰 단행본의 후쇄본 또는 영인본들이다.

하지만 앞서 4종 판본의 서지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조본을 제외하더라도 각 판본들은 행자수와 판의 형식이 상이하여 초간이나 중간, 또는 저본 관계에 의한 번각 여부를 확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존하는 각 판본의 대조를 통하여 본문 편성이나 수록 내용 등 판본간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비교의 순서는 간행 계통이 다를지라도 내용이 대폭 침삭된 재조본과 보원사판을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사찰 단행본 3종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판의 외형상 드러나는 간행 계통의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판본 간 내용의 공통점이나 변개 및 수용 양상을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상관관계를 파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5.1 재조본 및 보원사판의 비교

5.1.1 본문 편성

먼저, 내용과 본문 편성의 측면에서 재조본과 보원사판의 개략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여기서는 본문 편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연이어 내용 교감의 측면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검토하였다.

<표 2> 재조본(1236)과 보원사판(1580)의 본문 편성 대조표

재조본(1236)	보원사판(1580)	
	해당 편수	비고
제1편-제4편	·	서문 생략, 제1-4편 누락
제5편	제1편	‘有一儒士覽大藏經問於牟子曰’의 주어 추가, 후반부 일부문장 생략 및 추가
제6편	제2편	단어 및 일부 구문 차이
제7편	제3편	구문 생략
제8편	제4편	어구 및 주석 추가
제9편	·	누락
제10편	제5편	구문 및 문장 생략
제11편	·	누락
제12편	·	누락
제13편	·	누락
제14편	제6편	문장 누락 및 일부 내용 추가
제15편	·	누락
제16편	제7편	글자 탈락 및 문구 추가
제17편	제10편	문장 누락 및 내용 변경
제18편	·	누락
제19편	·	누락
제20편	제11편	문구 생략 및 내용 압축
제21편	·	누락
제22편	제8편	본문 생략 및 내용 압축
제23편	제9편	구문 차이 및 일부 어구 추가
제24편	제12편	일부 어구 차이
제25편	제13편	문답 및 어구 생략
제26편	제14편	일부 단어 차이
제27편	·	누락 및 제15편에 재조본 제27편의 ‘夫人行迷則改路術窮則反故...’ 등 일부 내용 포함
제28편	제21편	일부 어구 생략
제29편	·	누락
제30편	제18편	내용 압축 및 변경
제31편	·	누락
제32편	·	누락
제33편	제16편	문장 및 내용 생략
제34편	제19편	문장 생략 및 내용 압축

재조본(1236)	보원사판(1580)	
	해당 편수	비고
제35편	제15편	문장 삽입(재조본 27편 내용일부) 및 문구 차이
제36편	제17편	일부 단어 차이 및 문장 생략
제37편	제20편	일부 단어 차이
跋文篇	跋文篇	어구 생략 (내용 교감)
총 37편	총 21편	발문편 제외

이상의 본문 편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재조본의 37편에 해당하는 본문은 보원사판에서 21편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두 판본이 3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판의 내용이나 형식적 관점에서 전혀 다른 계통이기 때문에 쉽게 짐작되는 사실이다.

보원사판의 경우 제1편과 같이 문장의 주어를 달리하거나 같은 편에서도 내용을 대폭 추가, 삭제 또는 압축하여 기술한 점, 제5편의 사례처럼 기존에 없던 내용의 주석을 새로 새겨 넣은 사실 등에서도 그 차이점은 쉽게 확인된다.

그리고 앞서 虛應堂 普雨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원사판이 간행될 즈음 세간에는 이미 단행본으로 「牟子理惑論」이 유통되었던 사실에서도 재조본과의 연관성은 더 찾기 어렵다. 다만, 두 판본 사이에는 내용적인 면에서 일부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본문 구성에 있어서 재조본은 진존하는 판본 중 온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위의 표에서 비교한 것처럼 두 판본간의 내용 편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즉, 보원사판에서는 재조본 편차로 제1편-제4편과 제11편-제13편, 제18편-제19편, 제31편과 제32편 등이 누락되었다. 또 보원사판 제15편에 보여진 바와 같이 재조본의 두 편에 걸쳐 나누어진 내용이 보원사판에서는 하나로 압축되어 기술되기도 하였다. 또한 줄어든 각 편의 내용을 재편하면서 재조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일부 순서를 바꾸어 편성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기존의 온전한 내용을 편삭하고, 그 순서를 달리한 데는 분명한 편자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시점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누락된 편들

이 가지는 내용상의 공통점이다. 즉, 제외된 편들은 주로 부처의 전기나 호칭, 불교에서의 服飾 그리고 부귀와 빈천, 도교에서의 辟穀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책이 편찬되었던 시점인 조선 중기 즉 16세기 후반이라는 시점적 정황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남겨진 편들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다루어져 편자는 해당 편들을 배제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조본의 본문 순서 중 보원사관에서 뒤바뀐 첫 부분, 즉 재조본 제16편과 제22편, 제23편이 보원사판에서는 제7편, 제8편, 제9편으로 연이어 편성되었다. 여기에 제10편까지 이어져 한결같이 불교의 윤리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다시말해 음주와 보시 및 담판과 실천 등 불교의 윤리문제를 다룬 내용의 일관성이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본문 후반부인 재조본 제33편에서 제37편의 순서 또한 도치되었으나, 이 역시 유불도 삼교의 교리를 서로 비교하여 내용상의 흐트러짐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원사판은 재조본의 제28편을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편성하였다. 이 장은 부처와 불덕의 광대함을 설파한 내용이다. 보원사판의 이러한 배열은 재조본이 말미편에 신선술이나 장생불사를 비판한 대목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무난한 마무리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하면, 선조 13년(1580) 보원사판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은 당시 관하본을 다시 써서 간행한 『理惑論』의 중간본이다. 다만, 이 시기 같은 계통의 앞선 판본에 대한 번각 여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본문 내용이 온전한 재조본과의 편별 비교를 통해볼 때, 재조본 37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편삭되었다. 또한 각 편 순서도 일부 뒤바뀌어 간행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사찰 단행본의 축약 및 내용 변동의 원인은, 첫째, 판본의 간행 시점, 둘째, 누락된 편들의 내용적 일관성 및 남은 편들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간행의 실무적인 차원이라는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두 판본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책의 구성은 편자 나름대로의 논지와 각 편별 일관성을 유지하여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이 핵심 사상만을 간략히 줄여서 전달하고자 한 편자

의 의도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용자들의 열람이나 판본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간행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던 측면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1.2 내용 교감

이상에서 살펴본 본문 편성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두 판본의 세부적인 교감 결과를 개략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자세한 대조 사항 및 그 차이점은 연이은 후속 논고로 발표하고자 한다.

두 판본간의 차이의 양상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단일 글자의 삽입 및 삭제 사례가 12건, 구문이나 문장의 삽입과 삭제가 73건이 발생하였다. 이 밖에도 글자 및 구문의 도치 사례 8건, 이형자 및 이체자 사용 9건, 동일 글자의 정자와 약자의 표기 방식 차이가 6건, 동일한 단어의 유의어 및 통용자 사용 36건, 글자의 오각 사례는 8건, 어조사 추가 또는 삭제 14건 등 다양한 방식의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두 판본 간의 차이 중에는 본문의 생략이나 문장 삽입이 많고, 이형자와 동의어가 빈출한다. 그러한 사례로 보원사판의 편자는 불필요한 구문을 과감히 삭제하였고, 번잡한 구문은 편자 나름대로 압축하여 간소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편에서는 추가 설명을 위하여 새로운 주석을 삽입하거나 기존 예시를 버리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당시 보원사판의 편자는 「理惑論」의 기존 내용을 단순히 줄여 짜깁기하였다기보다, 경전의 내용과 관련된 이론을 충분히 학습한 뒤 책을 재편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한 물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거침없이 제시한 답변이나, 동일한 문구나 단어에 대하여 異稱을 자유로이 구사한 본문의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향은 佛典을 重刊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책의 편찬은 이 시기 사찰의 학승이나 불교에 깊은 이해가 있는 지식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이 보원사판 또한 단순한 내용 줄이기식 편찬이 아닌 편자 나름의 논리와 학습이 반영된

수고로운 결과물로 이해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보원사판 제4편의 ‘日角’을 ‘月角’으로 표기한 것과 제5편의 ‘巢許’를 ‘蘇許’로 새긴 사실 및 제6편의 ‘何承天’을 ‘河承天’으로 판각한 것은 새긴 각수의 실수⁶⁸⁾로 보여진다. 이 가운데 전자는 인조 14년(1636) 통도사판에서 ‘日角’으로 고쳐 새겨졌고, ‘蘇許’ 및 ‘河承天’으로 판각한 실수는 이후 통도사판(1636)과 대원사판(1638)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또한 보원사판 제9편의 시작 어구를 ‘門曰’로 판각한 것도 새긴 사람의 실수로 여겨지고, 이후의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례이다. 그 밖에 보원사판 제13편의 답글에서 ‘吾都佛經’이라 둔 것도 ‘吾觀佛經’의 오각이며, 이 또한 통도사판에서는 바르게 수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원사판 제6편과 제11편에서도 ‘夏至日曰’을 ‘夏之日月’로, ‘商鞅’을 ‘商鞅’으로 새기는 등 오각의 사례가 다소 발견된다.

5.2 단행본 3종 비교

여기서는 조선 중기 사찰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3종의 판본을 대조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문에 대한 정오의 대조 및 구체적인 차이는 앞 장과 더불어 후속 논고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그 특징적인 사실만을 대체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행본 3종의 판본들은 간행 시기상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판형이나 계선, 어미나 행자수 등 판의 외형적 관점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계통으로 여겨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 판본의 본문에서는 일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미 16세기 중반 이후 기존의 『理惑論』과는 또 다른 단행본 계통이 사찰을 중심으로 流傳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이 시기 간행된 판본의 저본을 적시할 수 없지만, 21편의 본문으로 편성되어 내용이 줄어든 당시

68) 물론, 중간본의 초쇄일 경우 판하본이나 번각본일 경우 저본의 실수를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통본의 기초가 되었던 판본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간행의 바탕이 되었던 판본을 토대로, 당시 여러 사찰에서는 유사한 판형으로 된 단행본을 새겨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 활동의 시기는 16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하한선은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의 간행 지역은 충청, 경상, 전라에 속한 사찰이었으므로, 지리적 요소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단행본 유통의 시발점이 된 최초의 판각사례가 보원사판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존 간본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형태적인 측면과 아울러 추정하면, 전존 단행본 3종 사이에는 판본 간 저본 관계나 계통상 공통점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드러난 본문의 교감 결과, 보원사판의 오각이 통도사판에서 고쳐 새겨지기도 하였고, 일부는 그대로 반복되기도 하는 등 일관된 측면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판본 간 새로운 문구가 부분적으로 추가된 사례가 있고, 조사나 어미 또는 단어 표기상 크고 작은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전존하는 3종의 사찰 단행본은 상호 영향을 주거나, 저본 관계에 의한 판각이 아닌 개별 사찰의 독자적으로 판각 사례로 귀결된다. 그리고 간행 시 저본의 존재 및 번각 여부는 전존본만으로 속단할 수 없다.

한편, 통도사판 제3장 뒷면 제7행의 ‘瞽腹’는 舜임금의 아버지인 ‘瞽叟’를 지칭한 것으로, 판각시 오류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원사판 제3장 앞면 제1행의 堯임금이 섬긴 것은 ‘尹壽’이므로 ‘允壽’로 새긴 것은 잘못이고, 같은 장 제3행에 공자가 배운 이는 ‘老聃’이므로 ‘老冉’이라 한 것도 오각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원사판 제8장 뒷면 6행의 ‘師曠’ 역시 齊나라 樂師인 ‘師曠’을 지칭하고, 같은 면 제8행 ‘公明義’ 역시 魯나라의 현인 ‘公明儀’를 가리킨 것이므로, 양자 모두 書寫 시 또는 새길 당시 각수의 실수로 보인다. 그 밖에 보원사판 제5장 뒷면 제6행에 ‘夏之日月正中時 行人無影’이라 든 것도 ‘夏至에 해가 정중앙에 떴을 때 행인들의 그림자는 없다’는 의미로, 통도사판과 대원사판 모두 ‘夏至日正中時 行人無影’으로 고쳐졌다.

또한 전술한 오각 사례들 중 보원사판 제4장 앞면 제5행의 ‘月角’을 ‘日角’으로 수정하여 새긴 사실, 또는 보원사판 제4장 뒷면 제5행의 ‘蘇許’⁶⁹⁾의 경우 세 판본 모두 고쳐지지 않았던 점, 보원사판 제7장 뒷면 제3행의 ‘門曰’이라 새긴 실수가 나머지 두 판본에서 수정되었던 사례, 보원사판 제10장 앞면 제4행 ‘吾都佛經’의 오류는 통도사판에서 반복되다가 대원사판에서 다른 글자로 대체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내용 수정이나 교감 상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반면, 3종의 개별 판본 내에서 각각의 글자에 대한 판각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었다. 즉, 보원사판의 경우 ‘辭’는 [舌/辛]로 일관되게 판각하였고, ‘明’을 어김없이 ‘朋’으로 새긴 것, 통도사판에서도 ‘地’를 시종 [家/土]로 바꾸어 판각하였던 점, 대원사판에서는 ‘修’와 ‘竺’, ‘萬’은 ‘脩’와 ‘竺’, ‘万’으로 통일하여 새긴 점 등 목판을 彫刻한 기술적 측면에서 새김의 일관성⁷⁰⁾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판본 내 字樣의 통일성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세 판본 사이에는 단어 또는 문장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본문의 차이는, 우선 새길 당시의 착오나 각수의 실수라는 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단어의 추가나 기존 문장의 삭제 사례는, 간행에 참여하였던 판하본의 書寫者 또는 간행 후 교감자에 의한 의도적인 변개나 수정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상기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판본간 차이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理惑論』의 저자와 서명 및 내용, 그 성립 시기 등 판본의 개략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전존하는 『理惑

69) 『莊子』 <讓王篇>의 ‘巢父’와 ‘許由’를 일컬음.

70) 이와 같은 개별 판본에서의 글자 새김의 일관성은 판 새김을 담당하였던 각수가 통일되게 판각하였거나, 판하본을 쓴 서사자의 일관된 書寫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세 판본은 모두 1인의 서사자에 의하여 쓰여졌던 반면, 보원사판의 경우 여러 명의 각수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판에 나타난 자양의 통일성은 각수의 일관된 새김이라기보다 書寫者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論』의 각 판본을 조사하고, 판본의 성립이나 유통에 관한 사실을 서지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개별 판본에 대하여는 이들의 간행 관련 사항을 고찰하고, 각 판본 간 교감을 통하여 이들의 상관관계 및 그 차이를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초창기 불교서인 『理惑論』의 유통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판본의 유통 사례이다. 즉,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16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이라는 명칭으로 사찰 일대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던 사실이다.

당시 유통된 판본에 대하여 형식상 온전한 재조본과의 대조 결과, 본문의 물음은 37편에서 21편으로 대폭 편삭되었고, 본문의 내용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또한 두 판본 사이에는 같은 편수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문장이 생략되고, 단어나 글자가 대체되고, 유의어나 이형자, 통용어들이 자주 사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차이가 드러났다. 그 밖에 두 판본의 본문에는 서사시의 오류나 새길 당시의 명백한 실수로 보여지는 판본의 오각도 다소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조 13년(1580) 보원사판은 새긴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글자에서는 일부 탈획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찰 단행본의 축약 및 내용 변동의 원인은, 판본의 간행 시점과 누락된 편들의 내용적인 일관성 및 남은 편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즉, 조선 중기로 넘어오면서 해당 편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기존의 남은 편수에서도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이 다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편자는 의도적으로 해당 편들을 줄이거나 같은 내용은 병합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편수는 과감히 삭제하여 재편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핵심 사상만을 간략히 줄여서 전달하고자 한 편자의 의도는 실무적인 차원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용이 축약된 『理惑論』의 출판은 이용자들의 열람이나 판본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간행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던 측면과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더불어 사찰 단행본 3종 사이에도 판의 외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본문의 대조를 통하여 다양한 차이 및 오각 사례를 밝혔다. 이들 각 판본은 개별 사찰의

독자적인 판각 사업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진행한 이본들의 비교 및 正誤의 비정 내용이 보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6-17세기 사찰간본 중 간행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당시 유통본 중에 보원사판보다 앞선 판본으로 판각의 저본이 되었던 간본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행 관련 기록이 포함된 판본이라면, 상기 연구에서 추정되었던 몇몇 사실들이 확실한 논거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사찰의 독자적인 경전 판각 사례 중에는 序跋의 기록을 통해 간행 경위를 밝힌 것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판본이 조사되어 국내 전존하는 『理惑論』의 계통에 대한 실마리가 파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원전]

『道家論辨牟子理惑論』.

『娑婆教主戒壇源流綱要錄』.

『清芬室書目』.

『通度寺誌』.

『弘明集』.

[단행본]

鎌田茂雄 著, 章輝玉 譯. 『中國佛教史 1·2·3』. 서울: 장승, 1993.

工藤一郎 著. 『中國圖書文獻史攷』. 東京: 明治書院, 2006.

久保田量遠 著. 『中國儒道佛三教史論』. 東京: 國書刊行會, 1986.

국립문화재연구소 編. 『불교민속문헌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김충렬 지음.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 羅樹寶 著. 「中國古代圖書印刷史」. 長沙: 岳麓書社, 2008.
- 道端良秀 著. 「中國佛教思想史の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85.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編. 「韓國佛教思想概觀」.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 牧田諦亮 編. 「弘明集研究 I · II · III」.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3.
- 문화재청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대전: 문화재청, 2003.
- 福井康順 著. 「道教の基礎的研究」. 京都: 法藏館, 1987.
- 山内晋卿 著. 「支那佛教史の研究」. 京都: 佛教大學出版部, 1921.
- 松本文三郎 著. 「佛教史雜考」. 大阪: 創元社, 1944.
- 僧佑(梁) 撰. 「弘明集(影印本)」. 上海: 商務印書館, 民國18(1929).
- 神尾式春 著. 「道家論辨牟子理惑論解説」.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1.
- 安啓賢 著. 「韓國佛教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3.
- 梁啓超 著. 「中國佛教研究史」. 上海: 上海三聯書店, 1988.
- 楊曾文 著. 「中國佛教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 이강수 지음. 「노자와 장자」. 서울: 길, 1997.
- 李箕永 著. 「韓國佛教研究」.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3.
- 任繼愈 主編. 「中國佛教史 第一卷-第三卷」. 北京: 新華書店, 1993.
- 林傳芳 著. 「中國佛教史籍要說」. 京都: 永田文昌堂, 1979.
- 張曼濤 主編. 「四十二章經與牟子理惑論考辨」.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1978.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趙吉惠 著, 김동휘 옮김. 「中國儒學史 1 · 2 · 3」. 서울: 신원문화사, 1997.
- 周叔迦 著. 「牟子叢殘新編」. 北京: 中國書店, 2001.
- 陳新會 著. 「中國佛教史籍概論」. 臺北: 三人行出版社, 1974.
- 陳垣 撰. 「中國佛教史籍概論」. 北京: 中華書局, 1955.
- 蔡尙植 著.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3.
- 蔡日新 著. 「漢魏六朝佛教概觀」. 臺北: 文津, 2001.
- 塚本善隆 著. 「支那佛教史研究」. 東京: 清水弘文堂, 1969.
- 劉立夫 著. 「弘道与明教: 「弘明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 2004.

- 通度寺 聖寶博物館 編. 『通度寺聖寶博物館名品圖錄』.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1999.
- 通度寺 聖寶博物館 編. 『한국의 명찰: 通度寺』.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1987.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通度寺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 許興植 著.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6.
- 許興植 著.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4.
- 황병국 편저. 『노장사상과 중국의 종교』. 서울: 文潮社, 1987.
- 黃有福, 陳景富 지음, 權五哲 옮김. 『韓·中 佛敎文化 交流史』. 서울: 까치, 1995.
- 黃卓越 主編. 『中國佛敎大觀 上·下』. 哈爾濱: 哈爾濱出版社, 1995.

[학술 논문]

- 羅基成. “牟子理惑論에 나타난 儒佛의 갈등.” 『韓國佛敎學』 제19집(1994. 10). 413-434.
- 稻岡誓純. “牟子理惑論の研究.” 『佛敎大學大學院研究紀要』 第11號(1983. 3). 25-47.
- 박찬영. “『理惑論』에서의 牟子の 불교 수용론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 『大同哲學』 제35집(2006. 6). 1-22.
- 福井康順. “牟子の研究.” 『東洋思想研究』 2號(1938. 11). 143-231.
- 常盤大定. “漢明求法說の研究.” 『東洋學報』 第10卷 第1號(1920). 1-48.
- 徐錫齊. “唐代 불교의 儒·道 二敎 수용: 孝와 冥界사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2.
- 余嘉錫. “牟子理惑論檢討.” 『燕京學報』 第20期(1936. 12). 1-23.
- 呂凱. “牟子之崇佛思想.” 『玄奘人文學報』 4期(2005. 2). 1-18.
- 吳勇. “試論牟子理惑論之眞僞.” 『宗教學研究』 207卷 2期(2007. 6). 68-73.
- 王淑裡. “牟子理惑論之成書年代及其內容.” 碩士學位論文. 國立中山大學校 大學院. 2003.
- 王志楯. “從『弘明集』看佛敎中國化.” 博士學位論文. 國立清致大學大學院. 1996.

- 李鐵華. “牟子理惑論新探.” 『殷都學刊』 30卷 3期(2009. 9). 135-139.
- 장애순. “『弘明集』에 보이는 儒佛道 三敎의 교섭에 대한 고찰 - 『牟子理惑論』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31권(2009. 12). 133-148.
- 정수동. “불교 효사상의 전개: 유교 효사상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7.
- 조명화, 김효신. “問答의 수사학 - 맹자 『萬章篇』과 『弘明集』 『牟子理惑論』의 분석을 통하여.” 『中國文學』 44집(2005. 8). 207-224.
- 曹秀明. “牟子之道及其對儒佛道三家之評價.” 『佛學與科學』 11卷 1期(2010. 2). 29-37.
- 陳義雄. “牟子理惑論所引佛經典源試探一以第一問爲主.” 『華嚴專宗學佛學研究所論文集』(2009. 5). 1-23.
- 淨然. “『牟子理惑論』之卷數考.” 『法源學報』 第21期(2003. 12). 1-14.
- 한상무. “『弘明集』의 牟子理惑論에 관한 소고.” 『韓國佛敎學』 별집(2008. 5). 320-325.

